

[大河기획/한라산학술 대탐사(220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4)

동서대맥의 중심 섬 전체를 포용

입력 : 2004. 11.12. 00:00:00



▲새끼오름에서 바라본 한라산 정상. 한라산국립공원내 오름들은 지질·식생·풍수·등반사 등 무수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한라대맥 제3구간 탐사완료

탐라구간:물오름(5.16도로)~백록담~어승생악(1100도로)

위용있는 한라산체의 오름 향연

5·16도로에서 1100도로까지 한라대맥 탐사 제3구간은 한라산국립공원내 지역이다.

한라대맥 탐사팀이 제3구간에 들어서서 처음 탐사한 오름은 지난 4월 3일, 5.16도로변 물오름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동수악 성판악(성널오름) 사라악 물장울 어후오름 흙붉은오름 등 한라산 동사면 오름탐사를 진행한 뒤 8월 15일에는 백록담을 탐사하여 한라산 정상을 넘어섰다.

이후 한라산 서사면에 위치한 장구목 윗세오름 큰드레왓 영실 불래오름 이슬령 망체 새끼오름 만세동산에 이어 지난달 30일 어승생악을 마지막으로 제3구간 탐사를 마무리하였다. 제주도의 동서 장축을 따라 동쪽끝 우도봉에서 서쪽끝 차귀도까지 진행되는 '한라대맥을 찾아서'탐사 중 이제 5분의 3을 마친 셈이다.

국립공원내 오름 탐사는 만만치 않았다. 연일 날씨가 좋다가도 탐사일 전후로 비오기가 일쑤였고, 국립공원내 오름은 한라산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코스 중복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탐사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탐사자체가 힘든 등산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탐사위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라산내 오름탐사는 제주인의 삶과 연관돼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온대에서 아한대까지 수식분포를 보이는 식생분야, 백록담 정상은 물론 기생화산의 형성과 지질분야, 사라 개미 등 영실 등 고산명혈지의 무덤들이 전해주는 풍수분야, 선인들의 한라산등반기, 인위적인 간섭없이 서식하는 노루 등 동물분야, 동계훈련 중에 목숨을 잃은 산악인들의 이야기 등이 씩씩이 이어졌다.

그런가하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솟가마터와 70년대까지 방목됐던 곳물(산물)의 흔적, 선작지왓에서의 탐궤들에 대한 해석 등 흥미로운 추적도 있었다. 논고악과 물장을사이에서 확인된 솟가마터의 경우 돌담으로 가마를 쌓고 굴뚝을 내어 반영구적으로 솟을 구웠던 독특한 방식으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전문적인 솟굽기가 이뤄졌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선작지왓의 탐궤를 비롯한 암괴들도 수수께끼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제주판관 김치(1577~1625)의 기록에 따르면 '수행동을 지나서 10여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선작지왓의 암괴들의 칠성대의 흔적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칠성신앙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추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탐사팀은 국립공원내 46개의 오름 중 바깥쪽에 위치한 능화오름 열안지 걸쇠오름 다래오름 등을 빼고는 동서 대맥 선상의 오름들을 모두 밟았다.

주요 탐사 코스-제3구간 33개오름 탐사

물오름-수악계곡-보리악-동수악-논고악-성널폭포-성널오름-사라오름-건월악-성진리오름-테역장오름-살썩장오리-물장오리-불칸디오름-어후오름-돌오름-흙붉은오름-백록담-윗세오름-방애오름-죽은방애오름-선작지왓-영실-장구목-삼각봉-큰드레왓-작은드레왓-불래오름-이슬령-망체-사제비동산-누운오름-새끼오름-만세동산-어승생악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